
우리말

—피진 중국말과 피진 영어?

안인희 · 번역가

1.

중국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된다. 그 많은 글자들을 어떻게 몇 개 안 되는 자판으로 집어넣나? 그들이 간체자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인데, 그 글자는 우리가 아는 한자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해서 로마자(영어) 알파벳으로 소리를 표기하는 독특한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영어 알파벳(병음) 표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글을 쓴다.

지금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아주 쉬운 말만 주고받는 채팅에서는 영어 알파벳만으로도 그런 대로 의사소통이 된다. 하지만 말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낱말을 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중국말 낱말들이 자주 사용되는 순서대로 나타나고,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낱말을 골라 넣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지면 속도가 떨어진다. 같은 낱말을 이중의 시스템으로—먼저 영어 문자로, 이어서 중국말 문자로—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맞이하면서 컴퓨터 자판과 문자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 누구나 알듯이 우리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한글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글 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말을 쓰고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어사전을 한번 열어 보라. 고유 명사를 다 빼고도 사전의 어휘에서 한자말이 칠 할이 훨씬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말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한자말은 본래 중국말을 우리 식으로 읽은 것이다. 사전의 어휘 중에 중국말이 이렇게 많다면 우리말은 글자만 한글이고, 속으로는 피진¹⁾ 중국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우리 생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낱말이 거의 예외 없이 한자말이라면 이것을 부인할 길은 더욱 없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에게서 처음 배우는 말이 어미말이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미말은 한자말이 섞이지 않은 우리 입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서너 살이나 네댓 살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한자말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모·네모·동그라미는 삼각형·사각형·원으로 바뀌고, 하나·둘·셋은 일·이·삼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아주 일찍부터 어미말과 나란히 한자말을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한자말로 넘어가다 말고 중간에 양다리를 걸친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표현 방법이다. “5:5”로 표시된 시계를 보고 우리는 “다섯 시 오분”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하도 익숙해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어, 이게 대체 뭐야, 왜 숫자가 두 벌이지?”

1) 옛날 중국의 상인들이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면서 이것을 ‘빠진 잉글리시(Business English)’라고 불렀다. 이 ‘빠진’을 외국인들이 ‘피진(Pidgin)’으로 들었다. 언어학사전에서는 나라말이 없는 후진국에서 영어와 같은 선진국의 말이 널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되면서 토박이 입말의 영향으로 크게 변질된 것을 피진 말이라 한다.

3.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우리말처럼 여기는 한자말을 공부하는 것 말고 진짜 외국말도 배운다. 네댓 살부터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옛날에 그 나이에 서당에 앉아 한문 배우던 조상들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일찍부터 외국말을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은 유행가 노랫말 속에 쉬운 영어를 마음대로 집어넣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텔레비전의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한자말이 섞인 우리말에 영어가 들어간 노랫말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글’과 ‘영어 알파벳’이 마구 뒤섞인 노랫말이 화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국제적으로 잘 키웠노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종계만 보자면 우리 젊은이들은 스무 살도 되기 전에 그야말로 우리말, 한자말, 영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국제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말이다. 지금은 그야말로 논술 열풍이 불어서 머지않아 우리 젊은이들이 다 훌륭한 글쟁이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문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글을 보면 한자말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바로 든다. 만일 그렇다면 논술을 통해 우리는 피진 중국말 쓰는 법을 죽어라고 훈련하는 셈이다.

그나저나 그것을 제대로 잘 쓰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중국말을 바탕으로 한 한자말은 우리말로써 아무런 말느낌이 없기 때문에 틀려 놓고도 제가 틀린 줄도 모를 때가 많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문장과 단락과 그보다 더 큰 의미 차원에서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뜻밖에도 많다는 사실이다. 누가 뜻표이를 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책을 읽고 전체 흐름을 읽어 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글을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이중 시스템을 사용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글자를 가졌기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는 텍스트의 뜻을 이해하는 데 이중 시스템을 사용하는 셈이

다. 중국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느려도 말뜻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입력은 빨라도 진짜 말뜻을 이해하는 데서 더듬거리고 있다. 한자말은 잘 아는 말이라도 반드시 문장 안에서 다시 새겨 보아야 정확한 뜻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을 게을리 했다가는 글자는 다 읽었는데 뜻은 모른다. 그리고 한자말을 함부로 집어넣고 글을 썼다가는 자칫 문법이 틀린다. 그러니 어느 편이 진짜 문제인가,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4.

지금은 일부 한자말이 영어로 바뀌고 있다. ‘천막’은 ‘텐트’가 되고 ‘장화’는 ‘부츠’가 되었다. 우스운 것은 앞의 말은 싸구려 물건을, 뒤의 것은 고급 물건을 나타내는 듯한 착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한자말이 영어로 바뀌는 유행은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문장 전체가 영어로 뒤엎힌 것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글라이더의 조립은 프로펠러 축과 스프로킷 휠(체인을 걸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생각보다 늦어졌다. 모터를 실험하는 동안 스프로킷 휠이 계속 느슨해졌던 것이다.” 이런 문장을 보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를 대충 포기한다. 그냥 ‘프로펠러 축과 그 근처 어딘가에 문제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끝이다.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정말 무슨 소린지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플레이스 모드 표시부”라든가 “카메라를 피사체에 맞추고 액정 모니터나 뷰파인더를 이용하여 구도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셔터 버튼을 반쯤 누르십시오.”와 같은 식이다. 아예 영어가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PLAY 모드”, “Business Shot 사용하기”처럼, 사용 설명서 전체가 이런 식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까짓 거 그냥 대충’ 산다.

5.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道)’라는 말을 번역해서 쓴 적이 없다. ‘도’는 언제나 그냥 ‘도’였다. 그 진짜 뜻이 무엇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고, 그냥 ‘도’라고 쓰면 그 말이 우리말이 되는 줄로 여겼다. 영어책을 보면 ‘타오(Tao)’라는 소리 번역(音譯)도 소개는 하지만 대개는 ‘길(the Way)’이라는 영어 단어로 제대로 옮겨져 있다. 지금도 영어책의 이런 부분을 우리말로 옮길 때 ‘도’ 대신에 ‘길’이라는 낱말을 쓰려면 누군가와 몇 번의 충돌은 각오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에 한자말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한자말을 이렇게 쓰던 버릇이 이제 영어 낱말을 번역하지 않고 낱말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번역한다 해도 결국은 한자말로 옮길 것이니, “한자말로 옮기면 우리가 모르기야 도로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는 물음이 나올 만도 하다.

고궁이나 박물관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설명해 주는 안내판을 읽으면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것이 아예 버릇이 되어서 아무도 따지지를 않는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다. 이런 버릇이 있으니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도 따지지를 않는다. 그냥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거나 그야말로 어깨 너머로 익히고, 일부 기능은 몰라서 아예 쓰지 못한다.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냥 참고 지낸다.

물라도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고약한 버릇을 고치려면 무엇보다도 한자말이 본디 중국말이지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한자말 용어를 뜻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우리말로 옮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널리 쓰이며 굳어진 말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말들을 잘 만드는 것이 더 먼저 할 일이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말 만드는 기계로 한자말을 쓰고 있다. ‘……하는 이’라는 말은 ‘-자(者)’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니 ‘방랑자’, ‘여행자’, ‘노숙자’ 하는 식으로 계속 새말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말은 한자말이 아니면 안 된다. 말 만드는 기계 자체가

한자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떠돌이’, ‘씨받이’, ‘안잠자기(입주 가정 부)’, ‘사팔뜨기’ 같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새말 만드는 기계(조어법)가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고 널리 보급되어 있지도 않으니 영어로 동사 어간 뒤에 ‘-er’을 붙여 만든 말은 모조리 한자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예가 꽤 많다. 영어의 ‘-ity’가 붙는 말은 ‘-성’을 붙여 ‘가능성’, ‘생산성’, ‘국민성’이 되고, 영어의 ‘-tic, -ic’은 ‘-적’으로 되고 있다. 그 밖에도 ‘팀장’처럼 영어 낱말 뒤에 한자말 낱자를 붙여 만든 말들도 있다. 이런 종류의 예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6.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소리글자를 가지고는 있어도 힘들게 피진 중국어, 피진 영어를 쓰고 있다. 이제는 이 두 가지가 마구 뒤섞여 있고, 앞으로는 우리말에서 피진 영어가 피진 중국어를 누를지도 모른다. 이 혼란이 너무 어지러워 차라리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미말로 배운 입말은 그 생명력이 어찌나 질긴지 그 옛날 이두를 쓰던 시절 이전부터 오늘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조선 시대 학자들이 한문을 글말로 썼어도 입말은 살아남았고, 일제 때는 일본 사람들의 힘에 눌려 거의 피진 일본말이 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입말은 살아남았다. 오히려 피진 일본말이 많이 사라지고 피진 중국말의 모습 뒤로 숨었다. 영어가 아무리 널리 쓰여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입말은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보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네댓 살 이전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배운 말이 우리 머릿속에서 언어의 틀을 결정해 버리는 것 같다. 체계적으로 입말을 죽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어미말의 말 틀이 남아서 한자말 들어간 문장을 바르게 쓰지 못하니 말이다.

이렇게 질긴 입말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 알파벳(한글)을 가지고 피진 중국말이나 피진 영어를 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제대로 만들어 쓰는 것이다. 그 길을 모른다고 하나

새말 만드는 기계를 우리말로 제대로 만들어 새 낱말은 모조리 우리말로 만들 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외국어를 하면서 이 문제에 부딪쳐 본 적이 있고, 마음이 선입견으로 덮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보다 못할 것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우리 입말의 문법 틀도 매우 탄탄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탄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긴 세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새말부터 한자말 대신 우리말을 써야 한다. 그 많은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자말은 뜻이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우리말은 뜻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말 만드는 기계만 잘 찾아내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 만들고 배우는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알파벳에 알맞은 진짜 우리말을 다듬어 쓰기로 먼저 결심을 해야 한다. 한자말과 외래어를 합친 비율을 삼 할 아래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은 영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말이 될 것이다.